

자활공동체 유형별 빈곤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 자활공동체가 갖는 대안적 일자리로서의 가능성 탐색

황 정 임* · 송 치 선**

초 록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60~70%가 여성이고 자활근로를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탈수급, 자활을 도모하는 현행 체계에서, 자활의 최종경로로 설정된 자활공동체는 보다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 19명을 면접조사하여 자활공동체 유형-생산조합형, 사회적기업형, 인력파견형-에 따라 이들의 자활경험을 분석하였다.

빈곤여성들은 자활공동체를 자신의 일자리로, 노동의 공간으로 여기면서 자활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생산조합형의 경우 시장 안에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버텨내야 하는 것 때문에, 인력파견형의 경우 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면서 노동강도와 불안정한 노동여건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사회적기업형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일반시장 보다 나은 노동여건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나, 향후 안정된 기업으로 정착될 것인지, 그래서 계속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현행 자활체계 안에서의 자활공동체는 시장진입형 공동창업 형태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을 갖고 있지만 실제 자활현장은 다양한 자활공동체가 공존하고 있으며, 각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의 자활경험도 상이했다. 따라서 자활공동체가 대안적 일자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활공동체 = 빈곤여성의 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활공동체의 유형별로 다각도의 맞춤형 자활공동체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인 생산역할(일)과 재생산역할(돌봄)을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주제어: 여성빈곤, 자활, 자활공동체, 근로연계복지

* 한국여성개발원 평등정책연구실 연구위원 im1003@kwdi.re.kr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기획팀 연구원 song@kwdi.re.kr

I. 서론

전세계적으로 근로연계복지, 일을 통한 복지의 정책기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이 이를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5).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자활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행 자활사업은 단계적인 자활경로를 설정하고 그 마지막 단계로 자활공동체를 위치지으면서 자활근로를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탈수급, 자활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 중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적 일자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노대명 외, 2001).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60~70%가 여성이고 현행 자활사업 안에서 자활근로를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탈수급, 자활을 도모한다고 볼 때, 자활공동체가 보다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5년간의 자활사업 시행 결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1970년대의 생산공동체 운동에 뿌리를 두고 제도로 편입되었으나 빈민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였던 생산공동체의 이념적 지향, 역사적 기원과는 무관하게 조건부수급자 중심의 공동창업이라는 형식적인 측면만을 도입했다는 점,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현행 자활공동체 역시 기술수준, 경영능력, 자본력 부족 등 예전의 생산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제도화되면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들까지 복합적으로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신명호·김홍일, 2002;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3). 또한 불확실한 제도적 위상, 전문적인 지원 부족, 판로 부족, 구성원들의 경영능력

부재, 기술수준 미약 등 내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노대명 외, 2001). 그 결과 최근들어 자활공동체 개념의 현실 부적합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활공동체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이 제기되며(이문국, 2005),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을 위한 움직임까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적어도 가시화되고 있는 논의의 중심은 자활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고, 실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참여여성의 경험과 인식, 이들에게 미칠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활공동체는 태생적 한계와 내재되어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분명 자활사업 시행과 함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수급자들로 하여금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시도된 일자리이다. 또한 자활공동체 현장은 엄태영(2004)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유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적 변화도 모색되고 있다. 제도적 보완과 개선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공동체 여성참여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빈곤여성들이 다양한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일자리로서 자활공동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자활공동체가 빈곤여성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로서 갖는 가능성과 한계점은 무엇인지, 빈곤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의 논의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탐색적이거나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자활공동체 관련 논의

자활사업 시행 이후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뤄진데 반해, 상대적으로 자활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그렇지 않았다. 정승호(2005)는 정부가 자활사업을 시작하면서 자활공동체에 최종목표를 두고 있는 이유를 자활사업에 남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고,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활사업을 시작한 이후 자활공동체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는, 5대 표준화사업 중심으로 자활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공동체 업종을 할 수 없다는 점, 탈빈곤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능력 유지를 주된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나타나면서 공동체라는 명칭에 맞지 않는 피고용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거나 개인자영업자도 존재하고 있는 점, 사업에 대한 의욕과 능력, 준비를 갖춘 참여자들이 중심에 서기 보다는 실무자들의 의욕과 능력으로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여자들이 건강, 심리, 가정, 개정, 기술력 등의 문제로 자활공동체에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 실무자들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엄태영(2004)은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본 있는데, 실무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이 많을수록, 작업 공간에 대한 지원이 있을수록, 기술습득이 용이할수록, 참여자가 이전에 직장경력을 갖고 있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자기 전망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자활공동체가 안정된 판로 구축이 없이 일반 업체들과 무한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인한 낮은 자신감 때문으로 보았다. 업무에 대한 흥미도,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 업무수행중의 피로도 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 사업이 비교적 노동집약적이고 반복적인 공정을 요하는 일이 많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이외에

도 자활공동체 유형을 4가지-생산협동조합형 방식의 자활공동체형, 인력파견형 형태의 자활공동체, 자활지원기업형/사회적기업형, 소규모 창업형-로 유형화하였는데, 전통적인 자활공동체모형인 생산협동조합형 방식에서 탈피해서 사업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노대명 외(2001)은 자활공동체가 자활사업 중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적 일자리 중 하나이나, 불확실한 제도적 위상, 전문적인 지원 부족, 판로 부족, 구성원들의 경영능력 부재, 기술수준 미약 등 내외적인 문제점 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김철수(2001) 역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자활공동체를 연결짓고자 했다. 즉,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지나 근로능력이 낮은 점, 시장경쟁력이 낮은 자활공동체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분야를 타겟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활공동체가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문국(2005)도 현행과 같은 자활공동체는 시장체계하에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공적으로 보호된 시장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고립된 형태이고, 4대보험이나 자산소유권 등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개념의 현실 부적합성을 지적하며 자활공동체형 기업으로의 전환, 이를 위한 법적 지원과 제도적인 보호된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자활공동체 관련 논의들을 볼 때, 자활공동체는 빈곤탈출을 위한 소득창출이 기대되는 일자리로 시도되었으나, 시장경쟁을 해야 하는 자활공동체 특성이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지 않고 그 결과 낮은 자신감과 낮은 업무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하나가 아닌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대내외적 특성이나 참여자들의 특성상으로 볼 때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자활공동체가 바람직하다고 제안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도출을 위한 참여자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고, 참여자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는 성별변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아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2. 자활공동체 관련 여성주의적 논의

그동안 자활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에 따르면 현재의 자활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성통합적인 정책과 각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왔다(강남식 외, 2001 ; 강남식 외, 2001 ; 강남식 외, 2002 ; 김영미, 2002 ; 박영란 외, 2001 ; 이숙진, 2002 ; 채혜영, 2003). 이러한 논의는 자활사업 시행 초기에 활발하게 이뤄졌고, 이후에는 빈곤여성에 대한 사례관리 개입방안, 외국의 빈곤여성 자활정책사례 연구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이 제안되었다(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002;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부설 자활정보센터, 2004).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자활사업 전반 혹은 자활근로사업에 초점을 맞춰져 왔고, 자활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탈수급 단계에 있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자활공동체 등에 여성주의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가 없었다고 보고, 제한적이나마 앞서 살펴 봤던 자활공동체 관련 논의와 자활사업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논의를 연관지어 두가지 정도에 초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활공동체가 한정된 자활사업 업종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자활사업의 업종이 자활공동체로 연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활사업의 성별화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업종은 주로 간병, 산모, 가사 등으로,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해왔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성별화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숙진(2002)은 자활사업이 빈곤계층에게 일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생계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노동영역에서 가치절하된 혹은 평가되지 않았던 일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재구성 한다고 했다. 이때 여성들은 주로 시장영역에서의 틈새시장으로 전통적인 돌봄과 보살핌 노동의 영역에 재투입되고 있는데, 여성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결과하기 보다는 가족 역할의 연장으로 비취짐으로써 전통적인 성별분업과 여성노동의 질적 저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활사업 안에서 여성의 비가시적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접근이 필요하

다고 했다. 강남식·백선희(2001)도 현행 자활사업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업단이 간병인, 봉제, 도시락 등인데, 이는 저학력, 저기술, 중년층이 많은 빈곤여성에게 특별한 인적자본 개발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통적인 여성 역할의 연장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을 고착화시키고 가정에서 하는 역할을 가정밖에서도 강요받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연속선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벗어나 미래의 노동수요나 시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박영란 외, 2002, 재인용). 이러한 주장들은 자활사업단 업종이 자활공동체로 연결되는 현행 자활사업체계에서, 자활공동체가 빈곤여성의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매김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여성노동 관련 단체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중심으로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 속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요가 증가할 영역으로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어서 자칫 새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에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되고 있다(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외, 2006).

또 다른 하나는 여성들의 노동참여를 위한 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숙진(2002)은 자활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가족내 역할이라는 현실적 조건에 의해 일할 권리가 배제되고 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양육과 간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여성들의 일할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들이 수행해 왔던 가족내 역할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통해 자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황미영(2002) 역시 여성 자활의 전략은 자녀양육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 자녀의 보호비용이 노동시장에서 빈곤여성들의 임금을 상쇄시키지 않도록 최저임금제와 모성보호 정책의 연계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미숙(2005)도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는 공적으로 지원되는 자녀양육 시스템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에만 기반한 접근은 부적절하며, 고용에 기반한 가정은 어머니냐 노동자냐는 선택의 뒷에 갇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선희(2005) 역시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인프라로서 아동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평가를 시도했던 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캐나다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Breikreuz(2005)는 노동시장 진입을 강제하는 것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들에게 더욱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과 여성이 어머니로서 수행해야 하는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여성들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Rake(2001)도 영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빈곤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는 기회비용(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한 양육비용의 증가 등)을 증가시키고 돌봄노동과 병행함으로써 인한 소득불이익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볼 때 실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다수가 여전히 간병, 가사서비스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그 수요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시장에 진입해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는 자활공동체에서 일하는 빈곤여성들이 처할 일과 돌봄노동의 이중부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고 실제 탈빈곤으로도 이어지지 못함을 엿볼 수 있다.

Ⅲ.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려는 것은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틀에서 시작된 자활공동체가 각기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자활공동체 현상은 이미 여러 유형-생산협동조합형 방식의 자활공동체형, 인력파견형 형태의 자활공동체, 자활지원기업형/사회적기업형, 소규모 창업형-이 공존하고 있다(엄태영, 2004). 공동창업 혹은 개인창업 형태로 시장에 진입한 자활공동체가 있고 이러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최근의 정책적 논의는 사회적기업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여성노동계 일각에서도 가사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부문의 돌봄노동을 사회적기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기존의 시장진입형 공동창업 형태의 자활공동체가 실패했다는 전제 하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황정임 외, 2005).

이렇게 각기 상이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는 자활공동체를 볼 때 유형별로 그 맥락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엄태영(2004), 이문국(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분류방법을 활용하여 유형별로 참여 여성의 자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공동체 운동의 역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활공동체 A형(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 ② 간병/가사 도우미 등 준전문직 집단의 사단법인 형태를 띠는 자활공동체 B형(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③ 영농/폐자원재활용 등 서구사회적 기업모델에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외부시민단체 혹은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의 법적·실질적 책임자가 되고 다수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자활지원기업형(사회적기업형 자활공동체), ④ 식당/홈패션 등 점포창업의 형태를 띠는 개인자활창업형¹⁾.

조사대상인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은 각 유형별로 해당 자활공동체를 먼저 선정하고 그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선정하였다. 유형별 자활공동체의 선정은 자활공동체 현황 자료 검토와 서울경인지역에 한정해서 자활공동체 관련 전문가들에게 각 유형을 대표할만한 자활공동체를 추천받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추천받은 자활공동체에 직접 혹은 자활공동체를 배출한 자활후견기관에 연락을 취했고 본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자 섭외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수락한 자활공동체와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에 한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는 주로 음식업, 청소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고,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는 산모도우미, 간병도우미, 가사도우미 파견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사회적기업형은 컴퓨터 재활용, 도시락배달업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총 1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1)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활창업형은 제외하였다.

하였으며²⁾, 면접지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는 참여 여성이 원하는 장소-사업장이나 다른 편안한 장소-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용에 대한 녹음, 녹음된 내용을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익명 처리하겠다는 것,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 동의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자활공동체 유형별 빈곤여성들의 자활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분석의 초점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적 일자리 중 하나로 제도화된 자활공동체가 빈곤여성들에게 어떠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일자리로서의 자활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자활의 경험은 어떠한지 등에 두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공동체로의 전환한 이후의 자활에 대한 의지/의욕, 소득의 안정성, 일자리의 안정성, 소득원으로서의 지속성과 미래비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V. 자활공동체 유형별 빈곤여성의 자활 경험

분석결과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특성 및 자활사업 참여 경험,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에 대한 경험, 자활공동체에서의 자활 경험-생산조합형, 사회적 기업형, 인력파견형-으로 정리하였다.

1.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특성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대다수가 40대로, 40대가 71%였다. 실질적으로 여성가구주인 경우가 47.1%였고, 여성가구주가 아닌 경우라 해도 가계의 주요소득원인 경우가 많아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여성들은 응답자의 약 1/2에 해당하는 47%가 남편의 직

2) 결과 분석에서는 19개사례 중 17개사례를 활용하였다.

장부도나 사기 등에 의해 빈곤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남편의 질병으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 27%, 사별이나 별거 13% 순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59%,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24%,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 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2/3가 ‘중’의 상태라고 응답했고, ‘하’라고 응답한 경우도 3명이었다. 평균 자녀수는 2.1명이었고, 초등학교 학령기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다양했는데, 대부분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거상태는 월세 65%, 전세 24%였다. 공공부조 수급기간은 5~6년 정도 되었고,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된 기간은 5년차 45.5%, 6년차 27.3%, 4년미만 2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형	번호	연령	학력	결혼 상태	가족 관계	국기초 수급 시기	자활사업 참여시기	수급 지위	건강 상태	주거 상태	주요 소득원	자활사업참여계기	노동시장 참여 경험
생생산공동체형	1	47세	고졸	별거	아들20 아들19	2000년	2001년	조건부 수급자	중	월세	본인	남편의 사업실패 후 가출, 본인의 실직	직장생활 했음.
	2	48	중졸	기타	딸19	2000	2003	조건부 수급자	하	월세	본인	수술	자영업, 택시기사
	3	43	고졸	유배우	남편45 아들15 딸12	1999	2001	조건부 수급자	중	월세	본인	봉제공장 도산/남편의 병환	95~99년 봉제 공장 경리
	4	42	고졸	유배우	남편 딸18 딸12	2000	2001	조건부 수급자	중	월세	본인	남편의 감옥생활, 병환	공장, 식당 근무
사회적기업형	5	44	고중퇴	유배우	남편47 딸21 아들20	1999	2001	차상위	하	자가	본인	대출받아 집장만, 회사부도로도 대출이 부채가 됨	전자회사
	6	52	무학	사별	딸27 아들24	해당무	2001	차상위	중	전세	본인	남편의 술중독, 경제적 무능	전자회사 근무
	7	41	고졸	유배우	남편46 딸17 아들12	1999	2001	자활 특례자	중	전세	본인	남편의 부채, 경제적 무능력	
	8	41	고졸	사별	아들17 아들13	2000	2003	조건부 수급자	상	월세	본인	사별	영업직원
	9	43	고졸	유배우	남편44 딸16 딸14	해당무	2003	일반	상	월세	본인	-	급식업체 근무
	10	51	초졸	유배우 (병중: 2002)	남편56 아들23	해당무	2000	미기재	중	전세	본인	남편의 병환	전업주부
	11	53	고졸	유배우	남편 딸28 아들25	해당무	-	차상위	중	기타	본인	남편의 사업실패, 이혼	

유형	번호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족관계	국기초수급시기	자활사업기참여시기	수급지위	건강상태	주거상태	주요소득원	자활사업참여계기	노동시장참여경험
인력파견형	12	39	고졸	유배우	남편41 아들14 딸13 아들11	2003	2003	조건부수급자	상	월세	본인	-	-
	13	51	중졸	별거(2000)	아들21 아들18	2002	2002	조건부수급자	중	월세	본인	별거, 본인의 수술	가사도우미
	14	48	-	별거(1997)	딸17 딸12	2000	2002	조건부수급자	중	전세	본인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별거	봉제공장 근무
	15	46	중중퇴	이혼(1995)	-	2001	2001	조건부수급자	하	월세	본인	남편의 직장 부도, 남편사라짐, 이혼	기업체 영업사업 경험있음
	16	40	고졸	유배우	남편45 딸6 아들4	해당무	2004	차상위	중	월세	본인	남편이 사기당하고 카드부채 생기고 돌려막고 차압당하고	전업주부
	17	42	중졸	유배우	남편42 아들16 딸13 아들8 아들8	미기재	2002	조건부수급자	중	월세	아님	남편 직장 부도	전업주부

자활사업단 이전에 대다수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경험을 갖고 있었다. 69%가 일한 경험이 있었고, 전업주부는 19%로 나타나서 2/3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식당, 판매원, 보험회사, 가내 수공업, 아르바이트, 전자회사, 파출부, 빌딩 매점, 공장 경리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이들은 IMF이후에 다녔던 직장을 잃기도 하고 남편의 실직, 이혼,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고도 했지만 실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양육이나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자활사업은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했던 일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자활사업은 일자리로서의 의미 보다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계비와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 등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전에는 이제 뭐 회사도 다녀보고 했었는데 진짜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죠.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막 너무나 어려워진 거죠. 월급도 못받고 그동안 집안에 이런저런 쌓인 문제가 IMF 터

지면서 집이고 뭐고 저희가 다 정리당하고 이랬었거든요. 정말 어떤 살
길이 안보이는 때였어요. 그때는. 그때 그나마 제가 이 자활근로에 참여
하면서 생계비가 조금 나오면서 다른 회사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게
고정수입으로 밀리지 않고 계속 나와주니까 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됐던
거죠. (5)

이혼해가지고 남자에 둘만 데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
어요. 그래서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 40대 되니까 어디
취직할데도 없더라고요. 몸까지 아프니까 근데 그 나이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취직도 전
혀 안되고 마흔이 넘으니까 공장 같은 데에도 취직이 안되더라고요. 그
래서 그 당시 애들 학비 줄 것도 없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도 걱정
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 길에 가다 현수막을 보니까 저소득 신고하라
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영세민이라는 건 알았지만 무슨 이
렇게 특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모르고 그냥 동사무소 가서 제가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일을 못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3)

2.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환한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대다수는 자활근로에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에
대해 자의반 타의반 나갔다고 응답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정 기간이 있
으면 자활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나와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직 자활공동체로 전환될 여건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이 되었다’고 혹은 ‘이제 지원해줄 만큼 해줬으니 나가라’는 식의 전환으
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전환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은 또한 식당이나 공장 등과 같은 일반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있었다.

쫓겨났죠 쫓겨난 거죠. 그 저기 그 자활후견기관에 3년 처음에 3년이
되면 공동체로 나가든가 아니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까 저희 그 3년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협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
요. 생활력이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안해도 그만이고 우리는 죽으나 사
나 해야 되고 그게 있는거 같아요. 근데 일반은 막상 내가 돈을 벌래도
공장 같은데서 뭐 삼교대 몇교대 해가지고 있는 다든가 식당같은데는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해야 된다고 열두시간 근무해야 하거나. 근데 저같이 애들이 모 어리다거나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16)

이들이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이유는 자신들 스스로 노력해서 소득을 벌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후견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자활공동체는 각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버는 것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실제 이렇게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성은 있었으니까. 빨리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준비하는데도 참 오래 걸렸어요. 일단 여기서 있을 때는 어떤 바람막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나가면 그후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사실 자의반 타의반해서 나간 거예요. 준비할 때 불안한게 제일 많았었고 나가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가 신분보장이 될까 그게 가장 크죠. 공동체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도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불안해요. 수급자도 아니고 머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없으니까 일단 나갔으니 공동체로 나갔으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게 있으니까 그런면에서는 불안하죠. (16)

힘들고, 공동체 가면은..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딱 딱 나오는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되면 돈벌이도 안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돈이 나오고, 안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거 한번도 없었어요. (9)

참여여성들은 이런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도 자활공동체로의 전환과정에서 실무자들로부터 자활사업단 참여자들과의 상황 공유,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 발전가능성 등 자활공동체로 나갔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상당기간 동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자활근로사업단에 정채되어 있기 싫어서 혹은 실무자들의 독려와 지원을 믿

고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결심하기도 했다.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어느 선에서 해주는 거지 공동체로 나간 사람들이 2년 동안 도와줬어요. 국민세금을 거두어서 우리를 먹여살리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일한하고 받는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여기서도 자꾸 강요한다기 보다 자기가 일반에서 가서 일 안하려는 사람이 어딴어. 못 버니깐. 힘이 없으니깐 그렇지. 국가에서 자녀가 이렇게 크니깐 영세민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벌어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만큼 벌어라 그러는 거죠. (14)

실무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꺼냐 하고 나가라고. 여기서 일단 여기 입장에서 여기 있는 것 보다 나가라 이게 더 낫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죠.. 사실 모여서 힘들어 겁나 불안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보시다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왔는데 이것보다 나빠지지 않겠냐고 왜 겁을 먹느냐” 아니냐 이런식으로 많이 힘을 준다 같아요. 그래요 가봅시다 머 더 떨어질 나락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구요. (16)

3.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살펴본 빈곤여성의 자활 경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의 자활 경험을 생산공동체형, 사회적기업형, 인력파견형 등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 유형별로 자활공동체가 갖는 일자리로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활공동체로 전환 이후의 자활에 대한 의지/의욕, 소득의 안정성(임금/소득수준), 일자리의 안정성(노동강도/근로조건), 소득원으로서의 지속성(어려운점/장애요인)과 미래비전(향후 일자리로서의 전망) 등을 중심으로 자활공동체 유형별 자활 경험을 분석하였다.

1) 생산공동체형³⁾

생산공동체형은 생산협동조합에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공동으로 노동하

3) 생산공동체형은 생산공동체 운동의 역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활공동체에 해당된다(엄태영, 2004 : 이문국, 2005).

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참여여성들은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에 불안감이 있기도 했지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을 때와는 달리 자기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생겼다고 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서 일할 적에는 어떤 일을 해도 내 일 같지가 않고. 그냥 월급쟁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일 끝나면 가고. 그런 마음으로 일했고.. 공동체로 나왔을 적에는 내 일 같아요. 일하는 것도 새벽에 일하는 것도 힘들지도 않고 그냥 내 일처럼 일하니까. 그게 자신감도 느껴지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도 내 일이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4)

그러나 임금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던 참여 여성들은 수익이 남지 않아서 실제 임금수준이 70~80만원 수준으로 자활사업단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너무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게 보이는거 같고 내가 그래서 빨리 배워서 빨리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8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달에 어떤 때는 집세를 내고 나면 3~40만원 수입밖에 안되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칠십 몇 만원 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만원 벌면 20 몇만원 나오고 (50만원 수입을 가져가면) 40만원 가져가면 30만원쯤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항상 80만원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도 80만원이에요. (3)

특히 노동강도가 세진 것에 비해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여성들은 9~6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자활근로와 달리 밤샘작업 등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수익을 남기기 위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었으며, 자립하겠다는 의지로 버텨내고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녁 12시 새벽, 밤새도 그 담날 또 일 나가요. 모 일주일엔 3번씩 밤새고 어쩔땐 3일 밤새고.. 잠을 한두시간씩 차에서 자고.. 주문이 밀렸을 때는 그래도 또 일 나와요. 그렇다고 더 돈을 많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게 슬 때까지는 할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여태까지 자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동체 2년 되었는데.. 바뀐 사람이 23명이에요. 그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후발주자로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의지가 있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나 아침에 애들 밥줘야 되고. 누군 아침에 밥줘야 되고 새벽에 못나와야 되고..이렇게 되면 일이 안되는 거예요. 합심이 안되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냥 동생들한테 얘기하든 누구한테 얘기하든 애들 맡겨 놓고라도 이거 해야된다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 해야겠다. (4)

이렇게 수익이 낮은 것을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생산공동체형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자활공동체로 시장에 진입했다 해도 시장안에서의 경쟁력이나 업체 운영 능력이 미흡하고 대출금 상환 등에 대한 부담이 큰데, 자활공동체로 전환해서 시장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이 끊겨서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자활에서 3년이라는 기간동안 그 경과 후에 어떤 시장형으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침 진입할 때는 참 힘들어요. 애로사항도 억수로 많고요. 제가 볼 때 이 공동체가 10이면 한 8개 정도는 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시장 진입형에 대한 어떤 미숙함도 있고 그리고 또 경험부족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기존 업체와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데서 아무래도 많이 뒤져요. 자본력에서도 거의 뭐 많이 뒤지고. 사실 그래요 여건들이. 그니까 일단은 글구 또 공동체 나오게 되면 일단 지원이 다 끊겨 버려요. 공동체 나오면 지원이 싹 끊겨버려요. 전에는 적립금이라고 3천만원씩 있긴 있는데. 지원해주는 걸로 기름값도 하고 도구도 사고 그러지만 그게 100% 쓰면 한 1800만원 쓰고 나면 나머지는 시에 반납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그 담부터는 자기가 기름값 대야지 할부금 내야지. 모든걸 다 여기 모 전부 그걸 운영비 같은걸 다 벌어서 충당을 해야 되고.. 인건비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같은 경우는 사회연대은행에서 받은 거, 시에서 전세대출금 받은 거 그것도 이자 나가지 상환금 나가지 이러니까 시장성을 바로 잡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4)

공동체 전환 후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줄

어드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인건비 지원기간이 짧아서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며, (영업이나 홍보 전략)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이 넉넉지 않아서 다른 일반 시장내 경쟁 업체들에게 밀리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공동체 나올 때 사람 3명 지원해 줘요. 무료로. 처음에. 그래서 여섯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일 시켜도 우리가 돈 안주고 거기서 다 하니까. 또 세 사람 일당 안주고 그냥 다 버니까 수입이 많은 거 같잖아. 그러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끼리 우리가 번 돈만 할래니까 다 일당들 주고 나면 없는 거지. 그게 마약이에요. 그게 어차피 그 사람들 쫓겨나고 시켜가지고 막 하다보면 많이 버는 거 같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팔려 나가면 다른 사람들 돈 주려면. 아예 없애가지고 그냥 나와서 애네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고 살아야지. (2)

일이 없을 때는 막 저기 홍보도 데리고 가지.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우리나라 아직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 해도 그런 일같은 거 많이 주고 그러면요 솔직히 식용유라도 하나 사다주고 그런. 내가 보다시피 월급이 짝인데 개인돈 갖고 사줄 수는 없는데 그런 돈을 안된다고 이렇게 그거를 막으니까 내가 제일 답답한 거죠. 일반 청소대행업체 개네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는 사과 한 박스씩 다 돌려. 자기네 인터넷에서 일을 하면 우리한테 일을 주는 거니까. 다 돌리고. 양말 한켠 레라도 사려면 능력이 안되잖아. 그러면 누구는 일없다 그러고. 그러면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나한테 영업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청소 하는데 몇 백만원씩 이런 걸 주는 거 아니지만은 인사라도 양말이라도 선물 하나씩.. 오고가는 정이잖아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다 역제를 하고.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선물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답답한 거지. (2)

참여여성들은 또한 자활근로사업에서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기술력이나 업체 운영에 필요한 지식이나 노하우 등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했고, 그것은 자활근로사업단의 참여자 중 일부는 자활공동체로 전환될 의지가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환 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동체 형태라니까 사람들이 더 안하려고 하죠. 뭐든지 장사는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한다는 거 동업 이런 게 말이 안되요. 말이 안되고 누가 더 잘났으면 그사람 쫓아가는 것보다 그 사람 시기하고 헐뜯는게 더 많지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아,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 맞으면 그 쪽으로 한꺼번에 의견이 모아진다든지 해서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 공동체라는 게 말이 안됐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까지 서로 너무 뭐라 그럴까 분란이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3)

참여여성들은 자활공동체로 전환했을 때의 초기 의욕은 사라지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공동체로 전환한 게 사업단 때 보다는 좋지. 누구 구속 안받고 우리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근데 이제 소득의 안정성 같은 건 보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그거는 없죠. 아직 그거는 보장이 안되고. 몰라 보장이 없으면 안되지 없으면 안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있는 것보다 부족하면 안되잖아요. 아유 지금같아서는 답도 안보여. 답이 안보이는데. 경기가 안좋고 지금 일단 이사청소도 해야되고 막 그러는데 경기를 좀 타니까. (2)

심한 자괴감을 보이기도 했다. 자활근로사업에 머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고자 자활공동체로 전환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활수준이고, 도리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느라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에서 오는 자괴감을 호소했다.

이렇게 장사 시작하면 맨날 이렇게 시장 나와서 물건 사죠 밤에는 11시 넘어서까지 가게 문 열고 있죠. 그래도 나한테 수입은 항상 80만원인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처음에 뭐하러 그렇게 등골빠지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 할 때도 나는 창업해서 내 일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고 빨리 빨리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창업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도루아미타불이 되버린 거예요. 지금 자활근

로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다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아침 9시면 출근해서 5시면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서 애들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침 9~10시쯤 가게 나오고 새벽부터 시장 돌아다니고 밤 11시까지 해도 똑같이 80만원이고 학비는 학비대로 빚을 떠안고 있고. 나는 잠 못자고 집안 살림 영망이고 그동안 애들 얼굴 보기 힘들었고. 공동체를 꾸려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3)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과 자괴감 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전략을 세우고 더 열심히 배우고 일하면서 노후까지를 생각하며 자기 전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거는 제가 노후에는 저기 뭐냐.. 일을 하면 추하게 보이니까 오십 한 두 살 까지는 해야지. 그러면 그 때 되서는 내가 인제 우리 참여자들한테도 조금만 고생해서 우리가 오더만 많이 따고 그러면 남을 시켜서 우리가 이익금을 받는 그런 날이 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일은 남 시키고. 우리 진짜 하나도 안놀아요. 뻑뻑하게.. 이걸 일요일도.. 설날이라 놀은 거지. 하루도 안 놀고 이렇게 하잖아. 앞으로 인제 가게가 살려면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하고 진짜 예전에 할머니 옷 짜는 그런 식의 생각 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업그레йд 되야 되는데 이렇게 뭐 먹고살 궁리만 하다가는 구멍가게 밖에 안되는 건데.. 내년에는 전문적인 것도 배워야 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발전적인 거잖아요. (3)

2) 사회적기업형4)

사회적기업형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자활공동체로 전환할 당시에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점차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자리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곧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참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지금은 자활에서 계속 일하다가

4) 사회적기업형 공동체는 영동/폐자원 재활용 등 서구의 사회적 기업 모델에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외부 시민단체 또는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의 법적, 실질적 책임자가 되고 다수의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자활지원기업형에 해당한다(엄태영, 2004 ; 이문국, 2005).

우리가 공동체로 만들어서 전환해서 나가서 우리가 벌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불안도 했었고. 나중에는 병원에 들어가면서 한 두어달 세달 지나가면서 딱 안정이 딱이어요 아 여기서도 내가 일할수 있는 곳이거나 안정이 되면서 수시로 대표님들이 와서 저기 하고 여기 좋은 정보있음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엄마가 보살펴주듯이 든든한 건 있었어요. 든든한 것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나라돈만 받아먹으면 안돼 더 사람이 진짜 모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머 이렇게 든든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동체로 전환해서 우리 힘으로다가 돈을 벌어서 살아보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가서 일하면은 자신감이 있고 우리도 떳떳한 하나의 저기 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었던 거 같아요. (7)

사회적기업형의 경우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임금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다. 노동강도는 자활근로사업 때 보다 쉰졌지만, 일반적으로 자활공동체가 수익나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일자리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업단에 있을 때 보다 일은 더 힘들지, 아무래도 거기는 일거리 없으면 쉬거나 하지. 그래도 아무래도 공동체를 나오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죠. 우리는 꾸준하게 월급 나오니까.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어요? 지금 70~80은 꾸준하게 벌잖아요. 이렇게 벌기 힘들죠. 일은 힘들어도 일할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판 데 가면 월급도 못 받고 그런 곳 얼마나 많은데요. 일거리도 없고. 꾸준히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6)

그리고 소득은 적어도 마음 편히 시장에서의 경쟁력 낮은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 만족스러워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급여는 적지만 다른 사업장 보다 좋은 조건이고, 누구나 모두 똑같은 입장에 있어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또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혹은 자활공동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운영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서 일하는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자활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회사나 다른 사업장에서 적응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이 사업장은 선생님들께서 같이 일하면서 서로

뜻을 다 받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다 내 주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열이 있는게 아니라 서로 똑같은 입장들이니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죠. 일반회사나 공장같은데 반장 있고 대리 있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 그 지시대로 따르지만 여기는 누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고 각자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편한 거죠.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마음만 편하면 되는데 느끼는 대로 말할 수 있고 선생님들한테 내가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눈치도 안봐도 되고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계셨던 분들은 실제 여기서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데 나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회사랑은 적응이 안되는거야. 여기가 마음은 편하니까. (5)

대표님이 알아서 하니깐 신경을 안 썼죠. 우리는 그냥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대표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회의야 하죠.. 가끔 회의는 하잖아요. 우리들이 역할분담이나 그런거 보다는 대표님께서 알아서 영업이나 회계나 모두 대표님이 하세요. (6)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표방하면서 운영체제 등을 마련해 가는 경우에는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과 비조합원들간의 임금구조, 의사결정과정과 절차, 업무에 대한 역할 구분 등에 대해 갈등이 표출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 대해 불만도 있었지만 운영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적을 때는 무시라고 해도 될만큼 직원 두세명이 지그들 끼리 알아서 하고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해라 결국은 무시당 하는데 무시당하고 그냥 지시한대로 현장에서만 뛰는 거야. 그러면 지들은 위에서.. 물론 잘되려고 하는거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요새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왜 저 언니 조합원인데도 저렇게 대우를 받아 그래 가지고 바로 올라가죠 대표한테. 올라가고 막 싸움도 하고. 왜 일방적으로 일반 기업이나 이게 이견 분명 공동으로 조합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사에 누구 맘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냐 뭐 나부터도 그냥 안있지. 참고 있다가도 아닌 거는 바로 건의하고, 조합원회의, 직원총회의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전에 팀장회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거 같아. 처음엔 초창기니까 지금 일년밖에 안되서 머리 쓸 일 많고. 내가 지금도 그렇게 애걸해요 직원들한테. 지

금 일어서는 단계고 이제 일년된 회산데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해하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뭐든지 결정하는 것도 상의해서 조합원들과 할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8)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했다. 노동강도가 세진 건 사실이지만 서로를 다독거리면서 지금의 자활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 기업체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며 밝게 내다보고 있었다.

노동강도는 더 세지셨죠. 그렇지만 공동체로 와서 발전을 하는 거니까. 발전이 되어간다는 것이 막 느껴지고. 우리가 기업체를 만들려고... 기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과정이. 여기 이렇게 쪼그맣게만 있을 거 아니고 크게 이제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소득도 늘어야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서 발전을 해야지 여기가 안 없어지지 안 그렇고 뭐 맛이 없네. 무슨 사건이 일어났네.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득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문 닫으면은 뭐 다른데 가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4대보험 다하고 이렇게 하고 기업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해보는데 까지는 해야워서 이제 그렇게 할려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거죠. 어쨌든 기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거 사업이 번창해서 조기도 지점, 이런 거 똑같은거 내고, 요기서 하나로 끝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좀더 넓게 해서...이거는 없어... 문... 웬만해서 닫기는 힘들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11)

그러나 자활공동체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 자신의 여러 상황이 노동시장에서 다른 일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여튼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가끔은 이게 이 공동체가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죠. 이대로 얼마 안가서 망하겠지 하는 그런.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제때제때 월급다주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남아 있을 생각을 하죠. 저희 나이가 비전없다고 탄직장 찾고 할 나

이는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비전이 없다고 다른 걸 하려고 그만 두죠. 그냥 주부들이 월급 잘 주고 그러니까 만족해서 있지 비전 없으니까 판데가서 비전 찾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5)

평생 일자리로 보고 있지. 지금 3년 이상 됐고, 일단 잘되고 있으니까 공동체로 나온 것에 만족스럽긴 하지만. 내가 좀 버거우니까 몸이 나이 50이 넘으니까 힘들어지는게. 사람들이 그러지 나는 인제 일보다, 빠르게 하는 일보다 편하고 좀 그런 거를 해라. 근데 쉬운 일은 없거든. 내가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내가 인제 몸이 지쳐서 못할 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걸로 생각은 하지. 한편으론 생각하면 서럽지. (8)

3) 인력파견형⁵⁾

인력파견형의 경우 공동으로 수익을 만들고 그것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닌 각자 일한 만큼 갖고 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여성들은 임금수준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인력파견업의 특성상 일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도리어 자활근로사업단 낮은 소득을 갖게 되기도 하고, 노동강도가 강해진 반면 임금수준은 향상되지 않았고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일이 있다 없다 하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안되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유료로 나와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일이 꾸준하게 있어서 한달에 내가 월급을 얼마를 딱 타온다는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게 제일 걱정이고요. 이제 일자리가 언제 없어질지를 모르죠. 환자가 퇴원해 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병원에 일자리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시죠? 일자리가 꾸준한 일자리가 안되니까 수입이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게 쥔 걱정이예요. (13)

9시간 출퇴근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73만원은 타요. 예전에 사업단이랑 비교했을때랑 별로 차이가 없지요. 24시간 정도 하면 105만원 110만원 정도 벌지요. 보름 일하고 그 정도 버는거니까 12시간씩 하루도 안빠지

5)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는 간병, 가사도우미 등 준전문직 집단의 사단법인 형태를 띠는 자활공동체에 해당한다(엄태영, 2004 ; 이문국, 2005).

고 일했다는 거지요. 사업단에 있을 때 보다 지금이 더 힘들죠. 열심히 일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조건은 더 나빠졌죠. 그러니까 사업단이랑 비교 해봐서 뭐 크게 급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저축은 한푼도 없어요.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애들하고 교육 뭐 교통비라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저축은 안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거 집에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죠. 뭐 5년전 생활이나 지금 생활이나 나아진 건 없는데. (16)

이런 상황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양육 문제, 가사노동 등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매일 9~6시와 같이 고정된 근무시간이 있지 않은 업무내용의 특성상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대,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대 등과 맞지 않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출퇴근은 2주에 60만원이에요. 근데 입주는 2주에 90만원이에요. 한달하면 180만원이구요. 또 고객이 입주를 요구해요. 거의 반은 입주하고요, 반은 출퇴근 형이에요. 다 입주하면 자기 자식들은 다 내팽개치고 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고객분들은 입주를 원하시잖아요. 그집에 가서 먹고 자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내 자녀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뭐 사회에 많이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래도 내가 없어도 애가 사회에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제일 어렵죠. 이 사업의 특성상 고객의 시간에 맞춰야 하니까 내 자녀는 자동으로 뭐. 고객이 오늘 열시까지 일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안해줄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녀는 밥을 굶어도 내 고객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되니까. 자녀 문제가 제일로 그렇죠. 지금 엄마들은 네살된 애들 놓고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쓰이고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5)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또한 일을 하면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우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낮았다.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평가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숨기고 싶어 했다.

직업중에서 젤 뭐 그런 직업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사무실쪽에서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부딪치는 거는 진짜 그렇죠. 정말 뭐... 막말로 똥 만지면서 대접 못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죠. 그러니까 어디가서 솔직히 뭐 동생들이고 언니 무슨 일해? 하면 선뜻 얘기하기가.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라곤 하지만 그게 안되더라고요. 숨겨지더라고요. 숨기고 싶은 직업이예요 저는. 근데 워낙 제가 너무 힘드니까, 감사하면서 일은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숨기고 싶은 직업이예요. (13)

낮설은 파견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인력파견업은 업종의 특성상 일정한 고정된 작업장이 아닌, 매번 파견되는 근무처가 상이하므로, 어떤 근무환경에 노출되는지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회원 중에 산모서비스를 처음하시는 분 중에 ‘왜 처음 가는 집을 자기 혼자 보내느냐 같이 가달라’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팀장이 가든가해라 매번 처음 가는 집을 같이 갈수가 없다 라는 단점이 있죠. 선배관리사 같은 경우는 자기 일 다 차지하고 가는데 내 일 빼먹고 그 집 갈 수가 없어요. 내 일이 다 그렇게 이 언니도 처음 갈 때 혼자 갔고 나도 혼자 처음 갔어요. 내려오는게 그렇게 가는거더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는냐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그냥 보내느냐 그렇지만 마땅히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가줄 사람이 그렇게 진짜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그러면 따라다니는 그 인건비는 누가 줄꺼야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다들 그냥 그러려니 했으니까 이렇게 갔지만 잠재되어 있는 불안감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갔는데 진짜 분위기가 험악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고 다들 그렇게 갔던건데’, ‘안당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찌다 당하는 사람은 누가 보장해주느냐’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생각에서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16)

일하다가 겪게 되는 위급 상황에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 등에 대해 부담감도 컸다.

처음엔 좀 당황스런 일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지 계속 해도 이게 저기는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 아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집집마다 얘기 상황이 다르니깐 좀 위험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내가 관리 잘못하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 책임이 크니깐. 아기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 책임도 크잖아요, 만약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망까지 가면.. (14)

아까 큰일이 있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느냐. 저희 각자한테 있는 거 같아요. 여기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방어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불안하죠. 어떤 진짜 상들리에를 깨가지고 물어줘야돼. 백만원 뭐 하는데 그 달라는 거지. (16)

이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와 소득수준으로 인해 계속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업종에 따라 현재는 수요가 많지만 이후 전망이 어두운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 불안감이 더 컸다.

공동체로도 나와가지고 일자리가 이렇게 꾸준하게만 있으면은요. 이쪽 수입이 더 나요. 수입은. 이쪽 수입이 난데.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서 놀게 되고 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활에 있는거 보다 훨씬 못하죠. 일이 계속 꾸준하게 이런 일자리를 준다고 그러면 나오는게 낫죠. 그게 안되고 하루 일하고 뭐 이틀 쉬고 뭐 이런식으로 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거죠. 생활이 안되는 거예요. 마음은 불안하죠. 자활에 있을 때는 그냥 어찌됐건 눈뜨면 출근하면 되고 가서 열심히 일해주면 되고, 환자한테 잘해주고 뭐 그런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만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일자리가 불안정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가 않죠. (13)

산후조리원에 갔다온 사람도 갔다와서 어떻게 얘기를 돌볼수가 없거든요. 따로 살림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가사도우미를 쓸수도 있고 산모도우미를 쓰실 수도 있고.. 근데 추세적으로 얘기를 안낱잖아요. 이제 수요가 없다고 해야 할까. (16)

인력파견형의 특성상 일과 자녀양육 등을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도 했지만, 자신들의 처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활공동체에 잔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있었다.

이 나이에 모 어디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채용하는데도 없지만 그리고 진짜 알아보니까 식당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애들을 놔두고 어떻게 식당에서 열두시간을 근무해? 못해요. 어린이집도 봐주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리 개네도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는 시간이 얼마 때문에 근데 일찍 끝남에도 불구하고 엄마 때문에 기다려야되는데 공장도 삼교대래 돈은 백만원 넘어가면 열시간 열두시간 근무래. 아니 열두시간 근무래 갈수가 없다. (16)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자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수급자들로 하여금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화된 자활공동체가 빈곤여성들을 위한 대안적 일자리 인가를 실제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활공동체로 전환 이후의 자활에 대한 의지/의욕, 소득의 안정성(임금/소득수준), 일자리의 안정성(노동강도/근로조건), 소득원으로서의 지속성(어려운점/장애요인)과 미래비전(향후 일자리로서의 전망) 등을 중심으로 자활공동체 유형별 참여여성들의 자활 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빈곤여성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활공동체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의무 이행을 위해 참여했던 자활사업이었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나갈 수 없다’, ‘제도적인 지원도 받을만큼 받았다’는 생각 속에,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활공동체로 전환하게 되었다. 제도적 지원 없이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전환 이후 자활공동체를 통해 탈빈곤하겠다는 자활의지와 의욕을 갖고 자활공동체를 자신의 일자리로, 노동의 공간으로 여기면서 자활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유형별로 여성들이 느끼는 자활의 경험을 정리하면, 음식업, 청소업 등의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보다 나은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고 창업을 통한 자활공동체를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기대 이하였고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내 일반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나름대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시장내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력이나 자본력 등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해서 자신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지원, 영업이나 홍보를 위한 비용 지원, 자활사업에서 자활공동체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에도 시장안에서 다른 경쟁업체들과 경쟁하면서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 열심히 일해서 일정수준에 올려놔야 한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컴퓨터 재활용, 도시락 배달 등의 사회적기업형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와 달리 참여여성이 직접 시장내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을 실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관여하고 있거나 운영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참여여성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시장경쟁에서의 생존여부에 대한 부담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참여여성들은 소득보장이 되는 안정된 일자리로 여기고 있었다. 실제 사회적기업형 자활공동체는 공익적인 성격의 일이 많아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참여여성들에게 안정감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강도는 세졌지만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당시에 느꼈던 불안감이 해소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다는 안정감, 만족감 등을 나타냈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간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 없고 새로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겪는 내부적인 갈등도 많았다. 또한 노후에도 여기에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도 했다.

산모, 가사, 간병 등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본인이 일한만큼 임금을 갖고 가지만, 강도 높은 근무여건이고 연속적으로 일감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이 낮아지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다른 유형의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도 건강문제나 자녀양육과의 병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특히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경우 12시간, 24시간

일해야 하는 일자리의 특성상 다른 유형들보다 가사, 자녀양육 등과의 갈등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다른 유형과 달리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등 파견형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시선, 매번 낯선 일자리에 파견된다는 두려움,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 등 업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다. 또한 일의 강도가 세서 노후까지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활공동체는 참여여성들에게 일반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의반 타의반 선택했던 노동의 공간이었지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생산조합형의 경우는 시장안에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버텨내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인력파견형의 경우 일에 대한 사회적시선을 의식하면서 노동강도와 불안정한 노동여건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수준이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반면 사회적기업형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일반시장 보다 나은 노동여건으로 만족감을 느끼고는 있으나, 향후 안정된 기업으로 정착될 것인지, 그래서 계속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자활공동체가 빈곤여성의 대안적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수준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개입의 지점은 달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 빈곤여성의 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다각도의 맞춤형 자활공동체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장 진입형 공동창업 형태 중심의 자활공동체였다면, 그래서 인력파견형과 같은 자활공동체의 경우 4대보험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현재 다양한 자활공동체가 공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안정적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과 같은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기업이 대안적 모델로 부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개념이나 취지, 운영형태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자활공동체가 이를 지

향할 수는 없다고 보면 다양한 정책적 상이 공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진입형을 지향하는 자활공동체의 경우 현재와 같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상 이 수요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영창업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빈곤여성들이 시장에서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서부터 자금지원, 사후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사회적기업화로의 전환 혹은 노인수발보험과 같은 별도의 제도화와 연계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는데, 업종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모색하되 지금까지 여성의 일로 평가되면서 가치절하되었던 점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 일정수준에 이르는 노동조건 확보, 4대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안전망 구축, 교육훈련체계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형 자활공동체는 실제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몇몇 자활공동체를 통해 그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지만,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화의 흐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성공가능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보다 치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간병, 산모도우미와 같은 사회적 수요가 있는 업종의 경우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속에 제도화가 타진되고 있기도 한데 기업적 속성과 사회적 의미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빈곤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이 생산역할(일)과 재생산역할(돌봄)을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유형에서 생산역할과 재생산역할간의 갈등이 나타났는데 특히 인력파견형의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벌기 위해 노동강도를 높일 경우 재생산역할과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란 외(2002)는 대부분의 공공부조 수급여성들이 일정기간 제도안에 머물게 되고 자활이라는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제도에 대한 의존심이나 ‘복지병’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양육이라고 하는 보호노동의 적절한 수행과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수행간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절박한 ‘생활전략’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아직도 ‘경제적 자활’보다는 ‘모성역할’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빈곤여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으로 배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더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이 생산자의 역할과 재생산자의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새로운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 만큼이나 빈곤여성의 자활을 도모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남식·백선희(2001), 여성복지적 관점에서의 자활지원사업 분석과 활성화 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7권 제2호.
-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1),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후견기관 프로그램 만족실태 및 정책제언, 여성빈곤깨뜨리기Ⅱ 빈곤없는 사회 만들기 토론회 자료집
-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9호.
- 김영미(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여성참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철수(200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 유료서비스 확대와 제3섹터형 자활공동체의 활용 제안,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4권. pp.77~96.
- 노대명·석희정(2001), 자활공동체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란·황정임(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간병도우미 자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백선희(2005), 빈곤여성의 자활의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아동보육사업의 과제, 한국아동보육학 제30집.
-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
- 신명호·김홍일(2002),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동향과 전망, 통권 제53호.
- 엄태영(2004),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자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문국(2005), 자활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복지동향, 제80호.
- 이숙진(2002), 여성주의시각에서 본 자활사업, 한국여성학, 제18권 2호.
- 자활정보센터(2005), 2004년 하반기 자활후견기관사업 현황 보고서.
- 정미숙(2005), 빈곤의 여성화와 젠더관계에 대한 시론, 한국여성학회 제21차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정승호(2005),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공동체로의 활성화 방안, 광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채혜영(2003),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자활사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2002), 사례관리를 통한 빈곤여성의 자립자활 지원과 자활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2003), 자활공동체의 이해와 실무.
- 한국자활후견기관 협회 부설 자활정보센터(2004), 빈곤여성의 자활정책- 유망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황미영(2002), 여성자활의 조건과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황정임, 송치선(2005),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자활공동체(참여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황정임(2005), 빈곤여성의 자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ennett, Fran(2002), Gender Implications of Current Social Security Reforms, *Fiscal Studies*, Vol.23, No.4.
- Cancian, M., Haveman, R. H., Mayer, D. R. & Wolfe, B.(2002), Before and After TANF: The Economic Well-Being of Women Learning Welfare, *The Social Service Review*, 76(4).
- Edin, K. & Lein, L. (1997), Work, Welfare, and Single Mothers' Economic Survival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2), pp.253~266.
- Ezawa, Aya·Fujiwara, Chisa(2005), Lone Mother and Welfare-to-Work Polici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wards an Alternative Perspective,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Volume XXXII, Number 4, pp.41~63.
- Garfinkel, I. & S. S. McLanahan (1986),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 New American Dilemma*.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Jimenez, M. A. (1999), A Feminist Analysis of Welfare Reform: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ct of 1996, *Affilia*, Vol.14, No.3, pp.278~293.
- Johnson, R. & Corcoran, M. (2002), *Welfare Recipients' Road to Economic Self-Sufficiency: Job Quality & Job Transition Patterns Post-PRWORA*.
- Rice, J. K. (2001). Poverty, Welfare, and Patriarchy: How Macro-Level Changes in Social Policy Can Help Low-Income Women, *Journal of Social Issues*, 57(2).
- Rake, Katherine(2001), *Gender and New Labour's Social Policies*, *Jul Soc. Pol.*, 30(2), pp.209~231.
- Rank, M. R. & Cheng, L. C. (2001), Welfare Use Across Generations: How Important Are the Ties That Bin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pp.673~684.

Study on Female Participants' Experiences in Self-sufficient Communities

Jungim Hwang*

Chiseon Song**

A self-sufficient community is the final stage in a Self-Support System and an alternative job opportunity for recipients of welfare. This study intends to re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experiences of women in self-sufficient communities. Nineteen women were interviewed through a self-support promotion agency, and 17 of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The majority of female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t communities considered a job in a self-sufficient community as bona fide employment and worked diligently to earn a living for their livelihood. However, positions in self-sufficient communities are low-paying jobs, and income through such positions is insufficient for basic living standards. As well, the jobs are unstable and the experiences of the female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t communities varied with the type of commun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ffer jobs suitable for women, allowing for different types of self-sufficient communities. Besides this, it is necessary to support various social services and programs to assist them in balancing a career and raising children.

Key words: self-support, self-sufficient

* Fellow, KWDI

** Researcher, KWDI